

# 제3부

## 이목동 배나무골 사람들의 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제1장 터줏대감 김인기의 지역 활동과 고향 사랑
- 제2장 이목동 아랫말 나무꾼에게 시집온 이윤호
- 제3장 피난민이지만 어엿한 이목동 사람, 김춘자





# 터줏대감 김인기의 지역 활동과 고향 사랑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 1. 이목동에서 나고 자란 수원의 터줏대감 김인기

수원 토박이 김인기(金麟基, 1915~2013)는 1915년에 수원군 형석면(荊石面) 이목리(梨木里) 139번지에서 경주 김씨 계림군파 21대손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학원(金學元)과 어머니 함안 이씨 사이의 4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성장하여 이목동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경주 김씨는 오랫동안 이목리에서 세거하였으며 김인기의 부친은 일찍이 마을 이장을 지내며 마을 일을 진두지휘하였다.

이목동은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이라고 불리다가 이를 한자로 표기한 지명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수원부 형석면 지역으로 수원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1831년(순조 31) 간행된 『화성지(華城誌)』에 형석면에는 6개 동이 속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촌(新基村)·울전(栗田)·천천리(泉川里)·탑현동(塔峴洞)·방축동(防築洞)·이목동(梨木洞)이 그것이다. 1899년(광무 3)에 발간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도 이목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형면(日荊面) 이목리가 되었고 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儀旺面)이 통합되자 일왕면(日旺面) 이목리가 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화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김인기는 1930년 수원공립보통학교(신평초등학교 전신)를 졸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전신) 부설 실업보습학교에 진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원군 반월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이후 경기도 지방삼림주사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업기사로 근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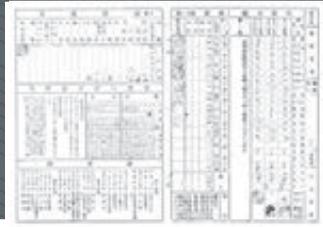
김인기는 서울대학교 재직 당시 그의 꼼꼼한 성격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역사에 남을 큰 공을 세웠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관악산연습림은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에 자리하여 생산

# 자료로 보는 김인기의 일생

수원박물관 제공



1915년  
이목리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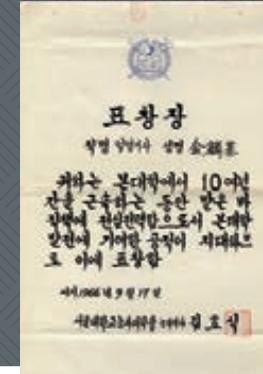
1924년(10세)  
수원공립보통학교 6학년



1932년(18세)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실업보습학교 졸업



1949년(35세)  
동양유리공업주식회사 사원 임명



1966년(52세)  
서울대학교 10년 근속 표창



1967년(53세)  
관악산연습장 직무대리



1933년(19세)  
경기도 중무시술생 임명



1934년(20세)  
결혼



1935년(21세)  
반월면 산업지도원 임명



1970년(56세)  
서울대학교 정년퇴직



1970년(56세)  
서울대학교 22년 근속 표창장



1972년(58세)  
대통령 표창장 수상



1937년(23세)  
반월면 서기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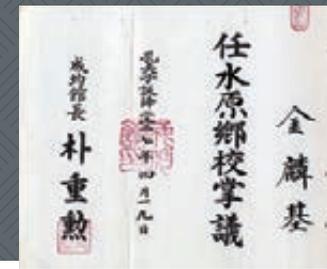
1938년(24세)  
경기도지방삼림주사보 합격



1946년(32세)  
서울대학교 관악산연습장 촉탁



1979년(65세)  
경주김씨수원화성지구총친회 이사



1986년(72세)  
수원향교 장의 임명



1995년(81세)  
이목동노인회 고문 추대





全 景  
決戰下最ニ重要ナル松炭油生産技術ヲ傳習會ニ傳習生二〇人ト共ニ



이목동에 거주하던 김인기 친족 나들이 기념 사진(수원박물관 제공)

성이 떨어졌고, 위치도 도심지와 인접하여 무분별한 입산자들의 출입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땅을 정부에 반납하였고, 1965년 해당 부지는 국유화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이창복 교수가 관악산수목원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연구용으로 사용했던 이력이 있는 관악산연습림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유화된 관악산연습림 부지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농대 연습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황당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관악산연습림의 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 소유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20년간 관리하였던 500만 평의 국유림 중 70만 평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보식원(保殖院)이라는 단체의 원장 박원희는 1964년 시흥군청 및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허위 임야 소유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70만 평을 사유지로 둔갑시켰다. 시흥군청 및 안양읍사무소의 공무원들은 가짜 소유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1964년 8월 26일 해당 허위 문서를 근거로 보식원이 국유림을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하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5명의 공무원과 보식원 원장 박원희

를 포함한 민간인 5명도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탁금 5만 원을 내고 풀려났고, 이후 전 시흥군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격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며 서울대학교와의 법정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경기도청 지하창고에서 『조선총독부 관보』(공식 문서)를 뒤지는 작업까지 하던 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인기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냈다. 서울대학교는 재판에서 해당 관보를 증거로 활용하였고,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판결로 서울대학교는 연습림을 되찾았다. 1967년 관악산연습림이 설치된 후 김인기는 관악산연습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연습림 환원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인기는 1960년대 후반 정년퇴임을 앞두고 노후 생활을 설계하며 농원 운영을 구상하였다. 수목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과 당시 시대 흐름에 맞춘 선택이었다. 1960년대는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고, 국토를 보호하자는 산림녹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시기였다. 당시 이목동은 수원의 변두리에 속하여 토지가 저렴하였기에 김인기는 넓은 땅을 구입한 후 아들들과 함께 밭을 개간하였다. 1970년 은퇴 후 김인기는 고향인 이목동에 본인의 호를 넣은 ‘청은농원(靑隱農園)’을 경영하였다. 농원 초창기에는 산수유, 회양목, 탕자나무, 꽃나무 등을 재배하여 꽃장수와 조경업자에게 판매하였다. 1960~1970년대 이목동에는 여러 농원들이 생겨났고, 규모가 확장되었다. 김인기는 이목동에서 20여 년간 청은농원을 운영하였으나 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며 아쉽게도 농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자동으로 이사하여 수원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 갔다.



서울대 농대 연습림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조선일보』 1966년 2월 17일)



젊은 시절 김인기(앞줄, 수원박물관 제공)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기(수원박물관 제공)



김인기의 어머니와 4형제(김진영 제공)

SRI 수원시정역사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로상 수상(수원박물관 제공)



공로상을 받은 김인기(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수림 환원 공로 대통령 표창장(수원박물관 제공)

# SRI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2.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파수꾼

정들었던 농원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손수 돌보던 나무들은 고심 끝에 후학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모교인 신흥초등학교를 비롯해 이목중, 동원고 등 인근 학교에 기증하였다. 이목동의 토박이로 살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자식과도 같은 나무들을 흔쾌히 기증하는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컸던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울전약수터 조성도 김인기의 행보 덕분이었다. 그는 자주 오르내리는 길가에 무방비로 버려진 약수터를 1984년부터 홀로 새벽부터 깡이를 들고 나아가 가꾸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그의 뜻에 동조하여 함께 '울전약수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멘트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며 꽃도 심어 아름다운 약수터를 만들어냈다. 덕성산 산자락에 위치한 울전약수터는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수원시에서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로 지정하여 주변 주민들이 산책이나 등산을 하면서 약수를 즐기거나 떠가기도 한다.

김인기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이렇듯 아주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목동 노



은퇴 후 운영했던 청은농원 앞에서(수원박물관 제공)

인정에서 한문 서당을 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옛 할아버지들처럼 한자와 예절을 꾸준히 교육시켰으며, 교통안전과 거리질서를 위해 '거리질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김인기가 지역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펼친 활동은 '노송지대 살리기 운동'이다. 노송지대는 지지대고개에서 옛 국도를 따라 자리한 소나무 식수지역이다. 이곳의 200년 이상된 소나무들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花山)으로 옮기면서 신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원화성을 축성하고 이를 가꾸고자 특별히 현릉원 식목관에게 내탕금 1,000냥을 내려 심은 것이다. 처음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식수하였으나 대기 및 토질의 오염과 차량 진동 등으로 점점 고사하여 많이 훼손되었다. 김인기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이목동 노송지대의 수령 깊은 소나무들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노송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섰다. 1990년 12월부터 수원시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와 호소문을 수백 통 보냈다. 8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김인기의

#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989년 울전약수회 활동(수원박물관 제공)



울전약수회 야유회(수원박물관 제공)



김인기의 노송지대 살리기 활동을 다룬 기사(『늘푸른 수원』 제55호, 1997년 12월 3일)

노력이 알려지면서 ‘노송지대 살리기 시민’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1997년 11월 26일 수원시문화상 지역사회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김인기에게 ‘수원시 노송감독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1997년 11월 26일 수원시문화상의 지역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유서 깊은 노송지대에 대한 김인기의 노력은 관계 기관의 관심을 환기시켜 수원시에서도 이들 나무를 보호하는 데 힘쓰게 되었으며, 후계 나무를 심는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마련하게 하였다. 당시 1997년 12월 수원시의 기관지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사가 2건 보도되었다.

먼저 「노송지대 살리기 총력-후계목 식재-엽면살포 등 지속관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화성과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노송지대(老松地帶). 정조대왕의 수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식재된 소나무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한국화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고령화되고 공해와 병충해에 시달리면서 고사한 경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노송지대 살리기 모임에 참여한 김인기(수원박물관 제공)

# 수원학연구센터

우가 많아 지난 73년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될 당시 137그루였던 것이 이제는 52그루만 생존,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그동안 노송 보호를 위해 영양제를 주사하고 후계목을 심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노송 보호 대책을 수립, 보호 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고령화로 쇠약해진 노송들을 병충해 및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노송지대의 풍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후계목 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시는 우선 1차적으로 노송 후계목 10주를 내년 4월까지 식재하고 이후 계속해서 후계목을 심어 나가기로 했으며 노송들에 대한 수세 회복 및 병충해 방지, 뿌리 기능 강화를 위한 뿌리 수술 및 토양개량, 생육을 보호하기 위한 엽면 살포 작업을 내년 9월까지 마친다. 또 노송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시비 작업을 계속하며 삼풍가든에서 옹머리 사이 1천75㎡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노송지대는 다시 옛날과 같은 명성을 되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원시의 노송지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뒤이어 수원



1996년 6월 28일 노송지대를 점검하고 있는 심재덕 시장과 김인기(수원시 포도뱅크 제공)



1995년 4월 11일 노송지대와 이목동 부근 쓰레기수거에 나선 김인기와 주민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7년 수원시문화상 지역사회봉사상 상패 (수원박물관 제공)

2001년 경주 김씨 수원시종친회 공로패 (수원박물관 제공)



1997년 제14회 수원시문화상의 지역사회봉사상 수상(수원박물관 제공)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시 노송감독관이자 수원시문화상 수상자인 김인기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 기사가 “우리시 노송지기 할아버지 김인기 응-자연유산 내뿜처럼 아껴야”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수많은 한파 속에서도 절개를 잃지 않고 몇백 년을 건디는 소나무. 8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송 살리기 등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김인기 응(83세·수원시 노송감독관, 수원향교 장의)의 모습은 그 소나무를 꼭 닮았다.

“수원의 노송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아주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수원의 정신적 기둥이나 다름없는 것을 온갖 공해 속에 내버려두고 돌보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가꾸고 있기는 하지만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아껴야 합니다”

이목리에서 농장을 경영했던 김 응에게는 이곳에서 소나무들과 함께 지내던 어린 시절이 향수처럼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노송지대의 소나무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소나무뿐 아니라, 수원에 대한 애착이 크기에 관의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건의해 왔고 이 때문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잔소리꾼이 됐다.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방안 장롱과 서랍, 책장에는 수원 등을 비롯, 전국 각 시장에 보낸 각종 탄원서와 투고들이 파일에 묶여 관리되고 있다. 이는 시정된 것과 미시정된 것으로 나뉘어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시 문화재 안내문의 잘못된 표기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지적하고 있었다. 비단 수원뿐만 아니다. 경주 통일전과 충북 괴산의 화양계곡, 대둔산 도립



김인기가 여러 관계 기관에 보낸 각종 건의서(수원박물관 제공)

공원 등의 노송과 수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 개선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천연기념물 제30호로 관리되고 있는 용문사 은행나무의 크기가 안내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 몇 차례의 재측정 끝에 내용을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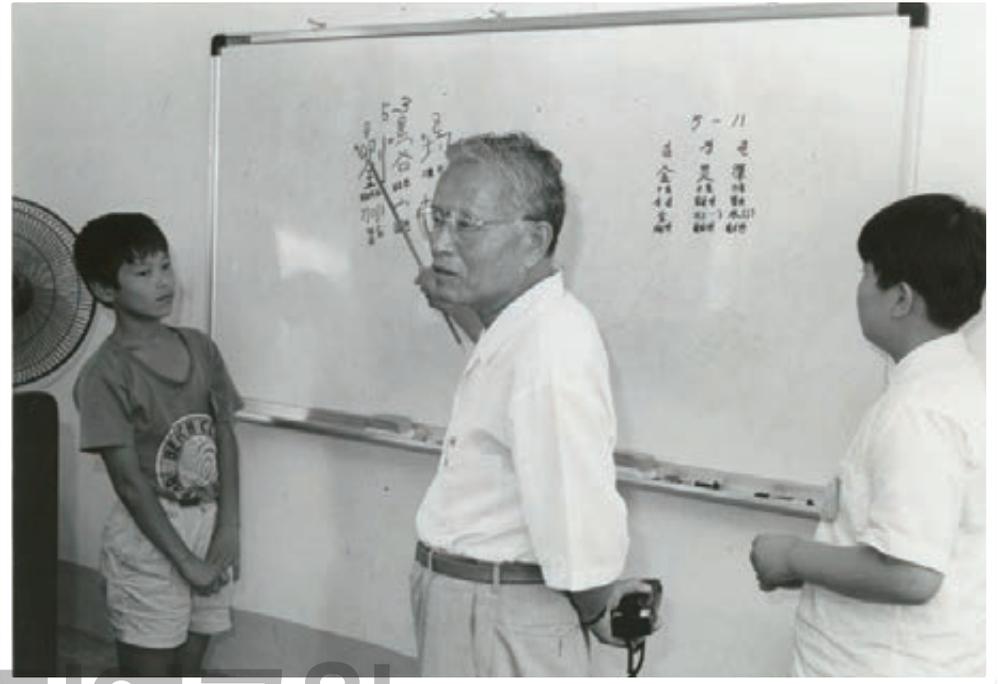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지요. 이 늙은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시정해 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어디 나를 위한 일인가. 수원과 이 나라를 위한 일이지”

김 응은 사회봉사부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6일 수원시문화상을 수상했다.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가끔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관에서 인정한 것이다. 평소 예절과 효를 가장 중요한 생활덕목으로 삼아온 김 응은 수원향교의 장의로 지내면서 방학이면 어린이들에게 한문과 생활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가정교육 시 손주들이 ‘호랑이 할아버지’라며 무서워할 정도로 엄격하게 시켜왔다.

“늙기는 늙었나 봅니다. 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이제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같이 못해요. 아이들도 그런 날 편안해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어쩌면 독불장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의 일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는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김인기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에서 실천된 노송지대 살리기 운동 덕에 현재 노송지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이자 안식처가 되어 있다. 노송지대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보낸 건의서와 신문, 잡지에 투고한 글과 서류들을 모아 놓은 것만 서류철로 7권이 넘는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김인기

# SR I 수원시정연구원

##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의 연구센터

김인기의 관심은 소나무뿐만 아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여행을 하더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다. 특히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안내문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즉시 사진을 찍고 기록하여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았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인기는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끝없이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특히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한 때 ‘잔소리꾼’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김인기의 관심과 사명감은 수원을 넘어 전국의 관공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꼭 통보받아 낼 정도로 매우 투철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정시킨 사항은 이목동 버스정류장 이름, 용건릉 이름의 재해석,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둘레와 수고 재측정, 경주 선덕여왕릉 안내판 제작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김인기의 애정과 봉사는 또 다른 방면으로 연계되었다. 수원향교 장의(掌議)로서 예절과 충효 교육에도 힘썼 노력하였다.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충효교육과 예절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조대왕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를 일깨우는 효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효원의 고장 수원’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이렇듯 김인기의 삶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이어져 왔다.

### 3. 소소한 일상의 기록이 역사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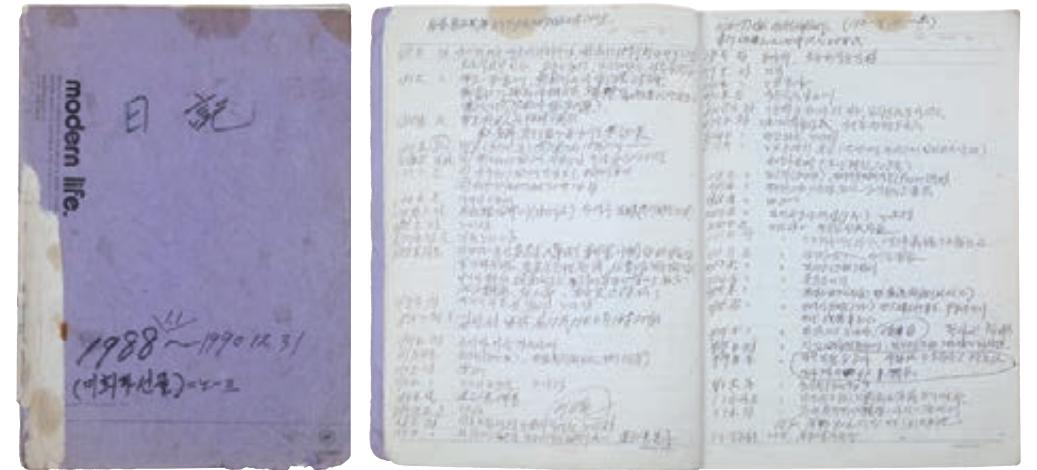
김인기의 일상은 기록으로 시작되어 기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전에도 방문객을 맞으면 으레 종이와 사인펜을 꺼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종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깨끗한 새 종이가 아니라 달력 뒷면이나 광고지 뒷면의 백지를 묶어 사용하는 데 아마도 가난한 시절의 물자 절약이 습관화된 것 같다.

노령으로 청력이 떨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용이한 필담을 종이에 써내려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중에 가보면 만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그날 나눈 대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후 문서철로 보관되어 있어서 그의 기록 정신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만남 이후 스스로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김인기의 기록 습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 일기이다. 그가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기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박물관에 기증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일기장 4권에는 매일 매일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날씨도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다. 빼곡한 그의 글씨를 보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일상을 지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김인기의 기록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관심까지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곧 많은 건의서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었고, 그에 맞는 필요한 자료 수집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한 신문기사의 스크랩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일찍이 김인기의 이런 고집스러운 자료 수집과 기록 정신은 6·25전쟁 때 피난길에서 생긴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수집과 기록을 수시로 해 오던 그는 일생의 기록 문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사에 대한 서류 등을 그냥 두고 피난을 떠날 수 없어 텃밭에 묻어 두고 갔다고 한다. 낙동강 하류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은 그 기록물들이 오늘날 수원시의 역사 자료로써 크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노고 덕분이다. 한말의 교지를 비롯한 각종 고문서, 고서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호적자료, 행정 및 경제생활 자료, 신풍초등학교의 전신인 수원공립보통학교 졸업장 등을 포함한 근대교육 자료가 모두 이때 김인기의 노력으로 인해 보존된 것이다. 그중에서 모교인 신풍초등학교와 관련된 자료는 신풍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때 기증하였다.

수원박물관도 김인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수집한 자료가 기증됨으로써 수원의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세밀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꼼꼼히 정리하고 수집하여 둔 대표적인 자료를 몇 가지 예로 들자면, 먼저 일제강점기부터의 호적, 임명장, 월급봉투, 여권, 병원 처방전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사 기록물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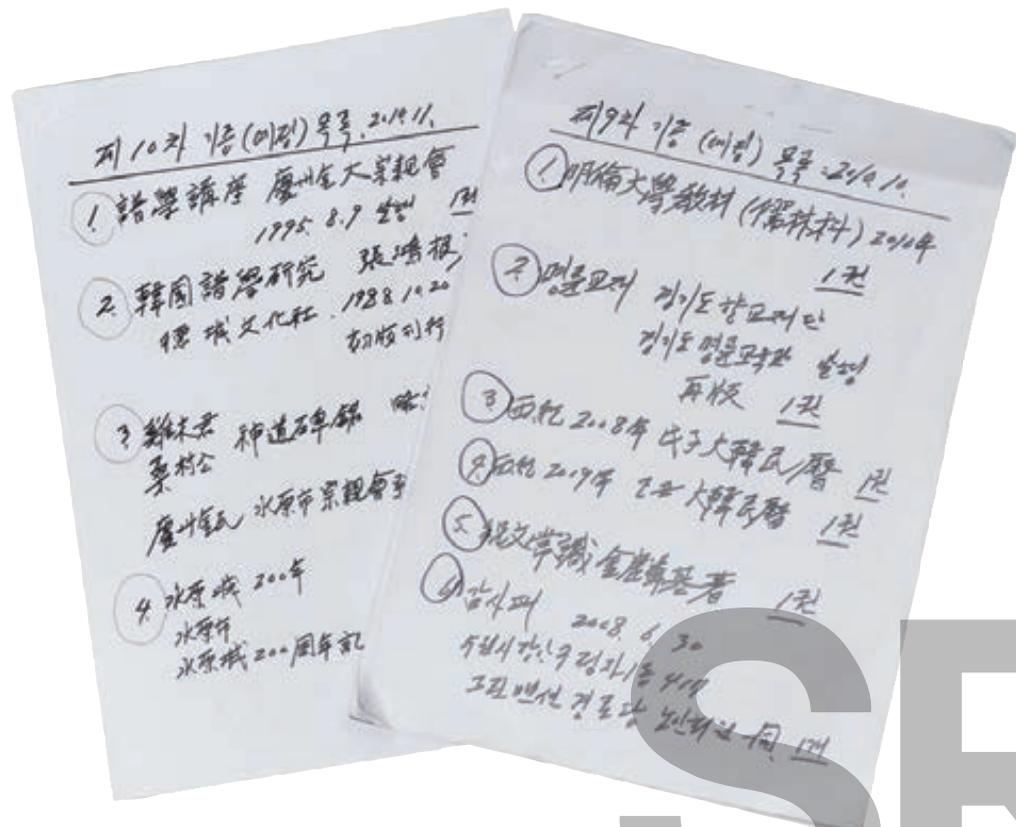
김인기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작성한 개인 일기(수원박물관 제공)



김인기가 직접 제작한 신문 스크랩북(수원박물관 제공)  
1993년 1월 28일부터 1997년 7월 25일까지의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아버지 김학원의 편지와 엽서 하나하나, 아버지와 자신이 읽던 각종 고서와 족보, 그리고 하다못해 일제강점기 때 쓰던 빈 용지까지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의서와 그에 대한 처리 내용 서류들, 신문스크랩,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각종 단체의 회의록 등은 각각 내용에 맞게 분류하고 묶어서 제각각 서류철을 해두었으며 맨 앞에는 해당 제목을 쓰고 쪽마다 번호도 매겨 두었다.

김인기는 이렇게 수집하고 기록하여 정리해 둔 자료를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수



김인기가 직접 기록한 기증 목록(수원박물관 제공)

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매년 기증할 유물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기증 목록을 손수 2부씩 미리 작성해 두고 나서야 박물관에 연락했던 김인기의 행동은 얼마나 수집과 기록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창 자료 기증을 하던 때에도 이미 90세를 훌쩍 넘긴 그의 이런 투철한 기록 정신을 보자면, 문득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의 저력이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때도 많다. 개인의 일상적인 소소한 기록과 수집물은 바로 역사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생생한 증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인기의 기록 정신과 자료 수집은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생을 정리하겠다는 그간 수집하고 기록해 둔 소장 자료를 일일이 다시 꺼내서 점검하던 김인기의 역사 만들기 생을 다하도록 계속되었다.

#### 4. 수원 토박이 김인기의 기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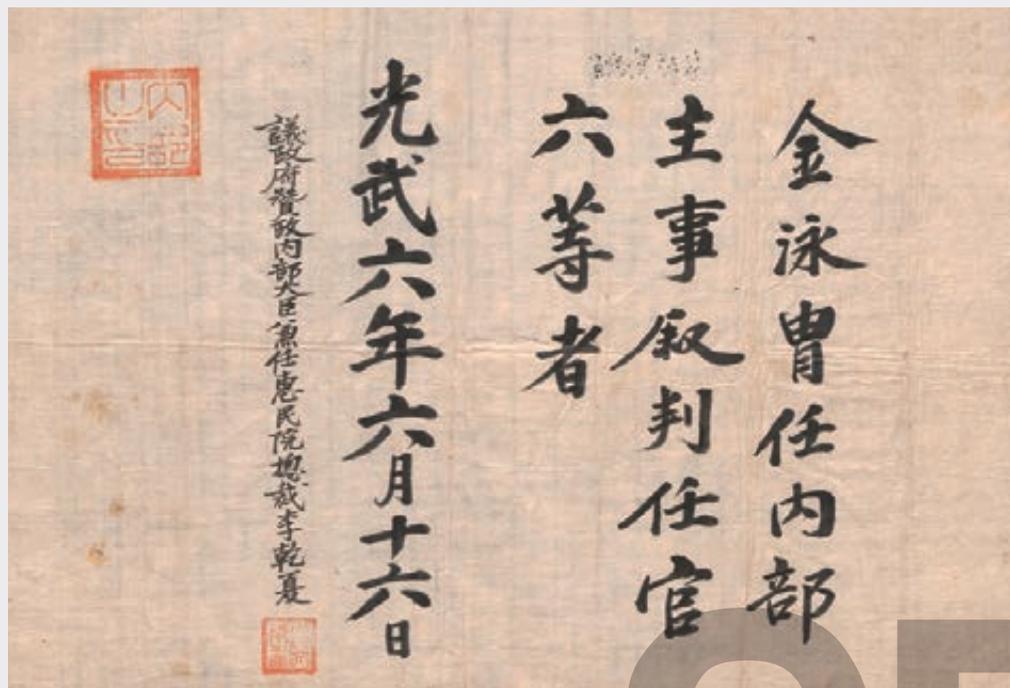
김인기는 수원박물관 개관 시점인 2008년부터 유물을 기증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무렵엔 95세를 넘기며 여생을 정리하기 위한 기증에 열심이었다. 이 무렵 김인기의 부름에 담당자로서 다급히 달려갔던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그의 전화를 받으면 그가 살고 있던 정자동 그린맨션으로 급히 박물관 유물 상자를 싣고 달려갔다. 그는 박물관 70여 명의 기증자 가운데 최고령자였다. 김인기는 당시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억력을 자랑하였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 때에도 항상 통화 목적을 먼저 알린 후 우리가 언제쯤 방문할지를 물어보았고, 몇 시에 몇 명이 오는지도 꼭 확인하였다. 이후 정자동으로 찾아가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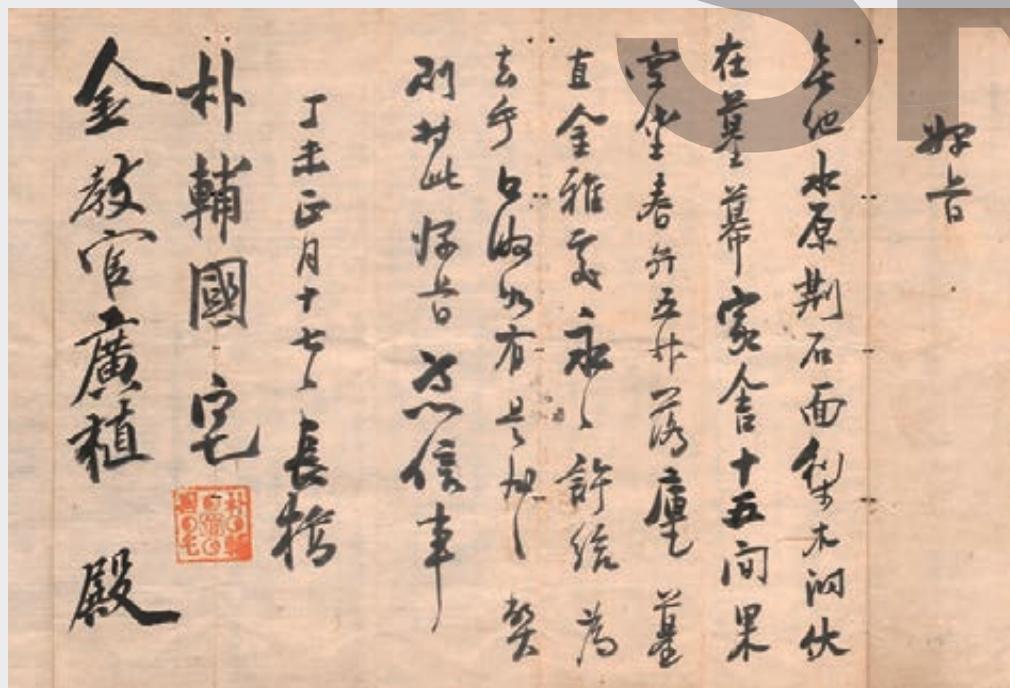
1987년 김인기와 정을희 부부(수원박물관 제공)

해로하던 동갑내기 부인 정을희는 늘 차와 간식을 준비해 필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곳에 갈 땐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그 차와 간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을희는 늘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남겼으면 왜 남겼는지를 묻곤 하였다. 첫 방문 때에는 이런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몇 차례 방문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었다. 아무리 연로하여도 남편의 손님 접대를 내 일로 알고 미리 준비해 두고 손님이 무엇이 불편하지나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아내 된 도리라고 여기어 음식을 남기면 마음에 걸려 하는 것이었고, 사전에 몇 명이 방문하고 몇 시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손님 접대에 만전을 기울였던 우리네 옛 어른들의 아름다운 풍속이 몸에 배인 탓이었다.

박물관의 신세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인기와의 첫 만남을 대비해 늘 미리 준비해 두는 몇 가지가 있었다. 바로 이름을 묻고 나면 반드시 자신이 따로 마련한 빈 종이에 기록을 하였다. 한자로 된 이름과 본관, 나이와 소속, 심지어 결혼 유무까지 기록되었는데, 예를 들면 “金世英孃 1972年生 金海金氏 安敬公派 水原博物館 韓東旻 博士와 같이 勤務, 未婚” 이런 식이다. 한자 문화가 익숙한 시대를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더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가 하얀 종이, 까만 사인펜, 돋보기를 꺼내



1902년(광무 6) 김영주 내부주사 및 판임관 6등에 임명장(수원박물관 제공)



1907년(정미년) 교관 김광식에게 묘막의 가사와 춘모 5되지기 땅 허급하는 배지(수원박물관 제공)



일제 초기에 작성된 「수원군 형석면 이목동 결수연명부급토지신고조사부」(수원박물관 제공)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며 필자에게 평생 모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증은 다양한 분야의 자료였다.

이목동에서 1915년 태어난 김인기는 다양한 자료 700여 점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의 꼼꼼한 기록과 정리는 당대를 사는 우리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생애를 온전히 보여 주는 이력서를 정리한 '이력서 묶음'은 일련번호를 매겨 흩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아버지 김학원의 대한제국기 이력서부터 시작한 이력서 묶음은 이목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들 집안의 뿌리를 온전히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력서 묶음과 호적철, 그리고 사진첩 등은 개인의 착실한 기록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인기의 기증 유물 중 이목동의 역사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기록물은 서울 죽동에 거주하는 박판서택의 이목동 묘역과 관련된 것이다. 박판서택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수원부 형석면 이목동에 조상의 묘역을 조성한 선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 이목동에 묘역을 조성한 박판서택의 묘제(墓祭), 곧 제례의식 때 사용되던 제기(祭器)와 제물에 대한 고서와 묘지기·산지기 간의 응역(應役)과 계전(契錢)에 대한 규정을 한문과 국문을 병기한 문서가 주목된다. 말미에는 묘지기와 산지기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매 장마다 인장이 찍혀있다. 이들 자료는 이목동에 세거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사대부 묘역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어 조선

# 김인기가 수집한 부친 김학원의 임명장과 해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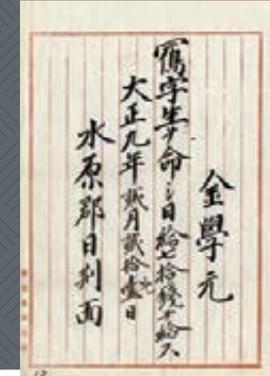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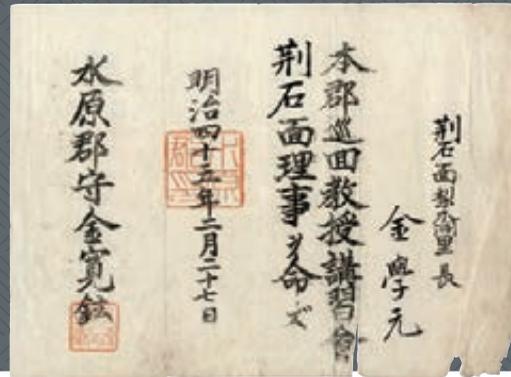
1916년 9월 12일  
수원군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일형면 서기 임명장



1918년 5월 17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20년 2월 27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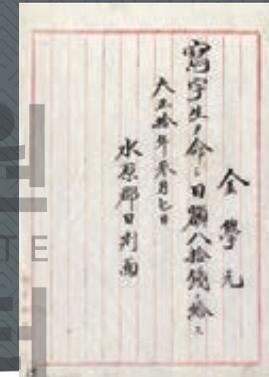
1912년 2월 27일  
수원군수 김관현이 형석면 이목동 이장  
김학원에게 수여한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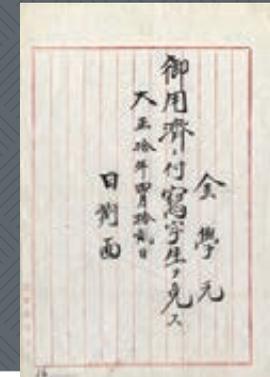
1914년 6월 23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일형면 이목동 이장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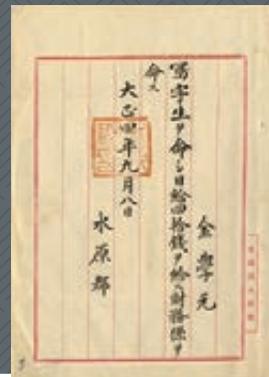
1920년 3월 25일  
수원군에서 사자생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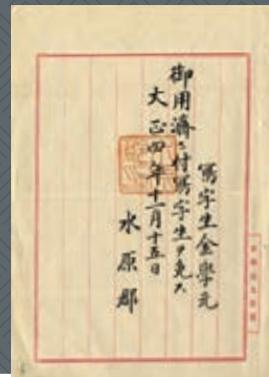
1921년 3월 7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21년 4월 12일  
수원군에서 사자생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15년 9월 8일  
수원군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15년 11월 15일  
수원군에서 사자생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16년 4월 4일  
수원군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일형면 감시고원 임명장



1921년 6월 3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32년 7월 8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37년 4월 25일  
반월면에서 산업지도원 김인기에게  
수여한 해임장

# 김인기가 수집한 부친 김학원의 월급 및 상여통지서

수원박물관 제공



1923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26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28년 12월 31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17년 12월 28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17년 12월 28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17년 12월 31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31년 6월 30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31년 12월 15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32년 6월 30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21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22년 3월 31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22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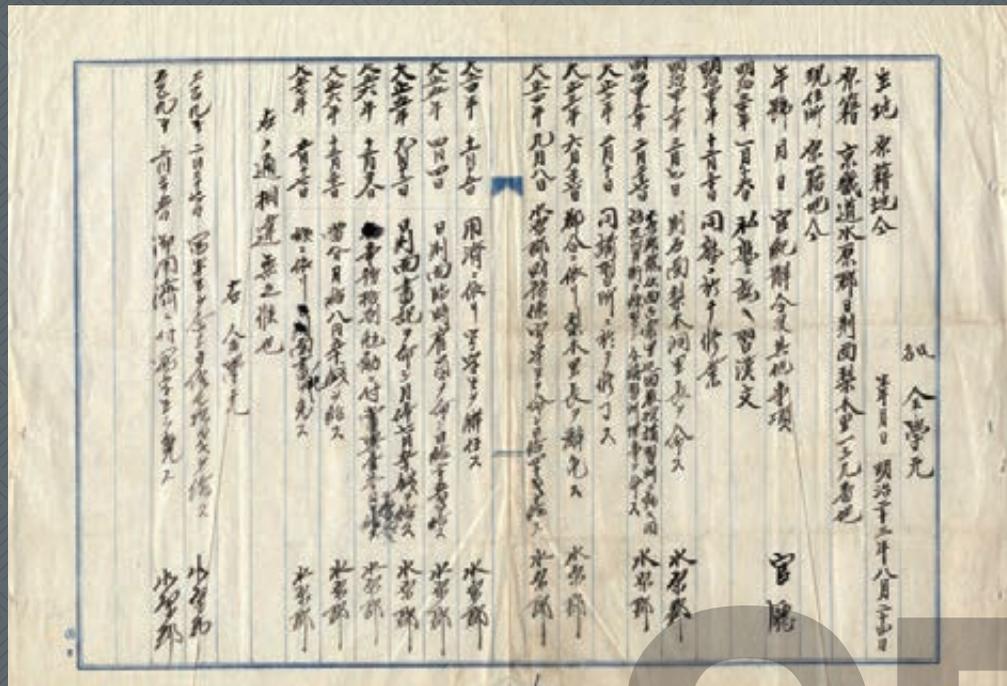
1932년 7월 8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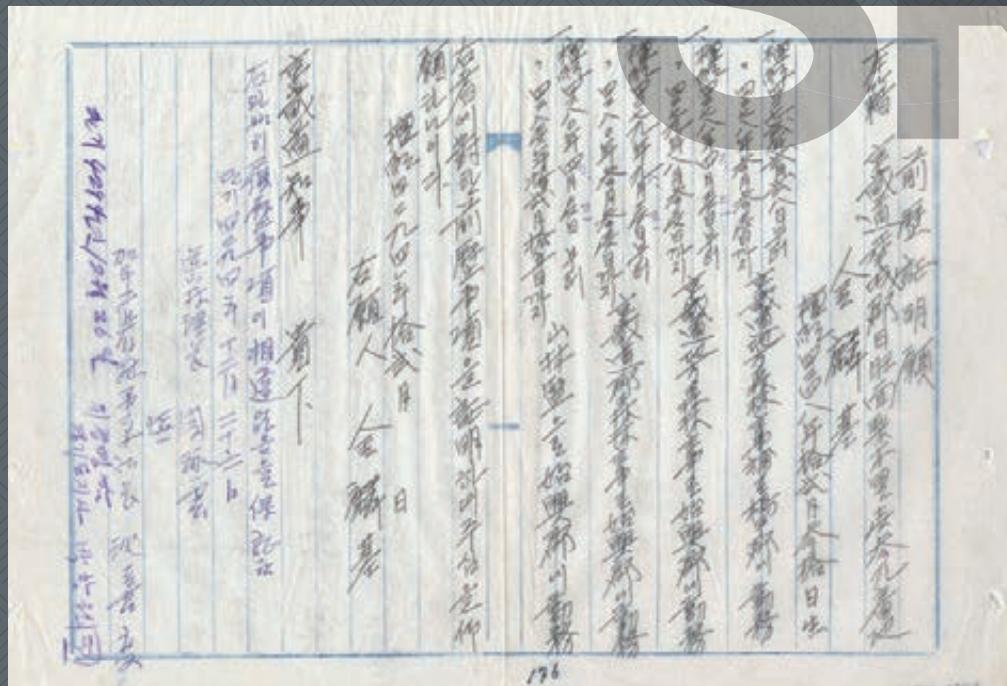
1932년 7월 30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원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퇴직급여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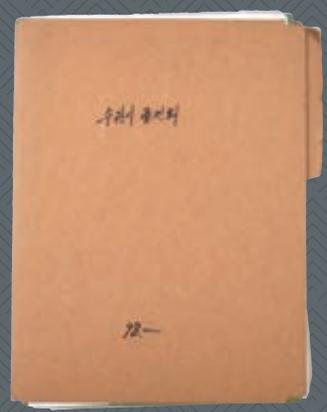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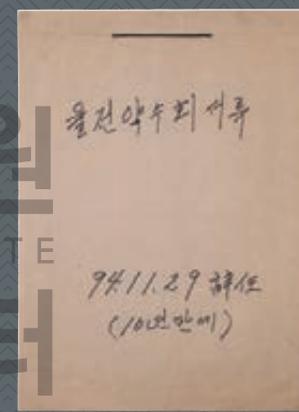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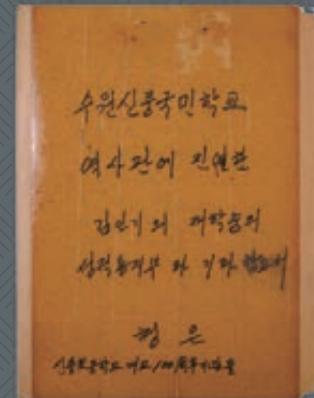
1932년 8월  
일형면 직원 일동이 김학원에게  
은배 1대를 근정했다는 내용의 증정서



김인기가 수집한 아버지 김학원의 이력서(수원박물관 제공)



1961년에 작성된 김인기의 전력증명원(수원박물관 제공)



김인기가 작성한 서류철(수원박물관 제공)



2008년 수원박물관 유물기증식(수원박물관 제공)

후기 수원 지역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처럼 집안 대대로 가전되어 오던 조선 후기 자료는 선조들이 지켜온 삶의 터전인 이목동에 대한 기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자료를 기증한 김인기는 수원 토박이로서 지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틈나는 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며 삶의 갈피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뒷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범상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고루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보통의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수원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사람들은 여타의 사람들과 다른 자부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상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뿐만 아니라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가 반드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목동에서 400여 년을 넘게 살아온 김인기도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와 우리들에 대한 긍지로 이어지는 것이니, 수원과 수원 사람들에 대한 풍부한 자료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만큼 김인기의 기증 유물도 주목받아 마땅하다.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터전에서 생존을 위한 고단한 삶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역사적 자료에 대한 방치를 가져왔다. 먹고사는 것이 우선시되면서 황금만능시대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터전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하였다.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아이들 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의 시대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수원도 급격하게 팽창하여 어느덧 인구 12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수원의 전통적인 동족 마을의 해체와 아파트로 대표되는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3대 이상 '화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오래된 것들은 실용적인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잃은 채 버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버리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는 후손들이 누려야 할 또 다른 역사를 훼손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김인기처럼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역사적 자료와 우리 당대에 이미 쓸모를 잃어버린 것들을 고이 보관하였다가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행위인 셈이다. 경제적 가치를 떠나 우리 시대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후손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김인기와 같이 수원 사람들과 수원의 모든 것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후손들에게 선조로서 당대의 우리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인 것이다. “어디 나를 위한 일인가, 수원과 나라를 위한 일이지.”라는 생전에 이른 김인기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자료 수집과 기록 정신에 대한 철학이자 후손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대변한 것이다.

# SRI

## 수원시정연구위원회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 이목동 아랫말 나무꾼에게 시집온 이윤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 1. 인천 아가씨, 이목동 아랫말로 시집오다

이윤호는 1945년 인천 옥련동에서 농사꾼 부부의 둘째로 태어났다. 고향 옥련동은 인천항 근처의 해안가 마을로 수인선 송도역과 미군 저유시설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농사도 짓고 피복을 파는 보부상도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다. 아버지는 농사지어 수확한 쌀이나 농작물을 장에 가져가, 장사할 피복으로 바꿔오곤 하였다. 무거운 짐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서 5분 거리의 송도역에서 협궤열차를 타고 장에 다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그녀와 형제들은 농작물을 지게에 저 송도역까지 옮겼다. 아버지가 장에서 피복을 가지고 돌아오면, 다시 송도역에 나가 피복을 지게에 실어 집까지 왔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혼자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인 피복 꾸러미를 집까지 굴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농사일과 보부상을 겸하며 고되게 사셨고, 가족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힘썼다.

한국전쟁으로 그녀는 1년 늦은 아홉 살에 송도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전쟁 이후라 천막이나 나무 그늘에서 70여 명씩 모여 수업을 들었다. 다들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이었으므로 그녀는 국민학교 졸업 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언니는 중학교를 나오는데 그녀는 그러지 못하니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인 은하수학교를 2년 정도 다녔다. 은하수학교에는 학생이 30명 정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었다. 선생님은 국군이었고 영어뿐만 아니라 윤리 등 전 과목을 가르쳤다. 그녀의 부모는 배움을 이어 가기 위해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이윤호를 말리는 대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딸을 염려해 수업이 끝날 때쯤 학교로 데리러 오며 자상하게 딸을 챙겼다.

그녀는 결혼 전까지 집에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왔다. 밭에 참외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처녀 시절 이윤호(1960년대 초반)

원두막에서 참외를 팔기도 하였다. 은하수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였다. 집안일과 농사일뿐만 아니라 갯벌에 나가 맛이나 조개도 캐다 팔았다. 그녀가 아침에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오면 어머니는 이웃들과 그것들을 까서 신포시장에 팔러 갔다. 어머니가 장에 못 가면 그녀는 형제들과 10리가 넘는 신포시장까지 걸어가 조개를 팔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 기운이 없어 조개를 많이 못 잡았다고 하였지만, 2년이나 주경야독하는 독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과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안타깝게 기억하였다.

이윤호는 고향이 이목동 윗말이던 큰어머니의 중매로 이목동 아랫말 토박이에게 시집왔다. 혼담이 오갈 때 남편이 그녀의 인천 옥련동 집을 방문하면서 이윤호 부부는 서로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순진해 보였던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선을 본 둘은 결혼을 약속하였고, 남편은 그녀의 집에 다시 한 번 찾아와 함께 약혼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녀는 혼수로 당시에 유행하던 호미이카(formica) 장롱과 이불 두 채를 준비하였다.

결혼식 날짜는 1966년 12월 31일로 그해 마지막 날이었고, 장소는 과거 수원 중동사거리 조흥은행에서 수원극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던 문화예식장이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이윤호와 가족들은 송도역에서 수인선 첫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와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 이윤호는 신랑의 가족들과 수원 이목동 아랫말 집으로 왔고, 신부의 가족들은 수원역에서 다시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인천 송도역으로 돌아갔다. 신랑 집 마당에서는 친척 및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은 잔치 음식으로 국수를 먹었다. 신랑과 신부는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고, 신혼여행 없이 집에 머물다 3일 후 신부집으로 인사를 갔다.

이윤호가 시집왔을 때 이목동 집은 방 두 개와 큰 마루가 있는 초가로 남편이 군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새로 지어 꽤 컸다. 하지만 대문이 아닌 짜리문에다 수숫단에 가시나무를 넣어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어 허전하였고, 집 주변은 다 돌무더기에다 사람 사는 집이 많지 않았다. 그녀의 고향 인천 옥련동 옥골의 가옥은 대부분 한옥이었고, 이목동보다 풍요로운 동네였으므로 비교가 되었다.



이윤호와 남편의 결혼 전 약혼기념 사진(1966년 9월 19일)

# 수원시정연구원

##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결혼 전 그녀는 신랑 될 사람이 나무꾼으로 나무를 해 팔러 다니면서 수원농고를 졸업하였다고 들었다.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에 그러한 신랑에게 시집가면 고생 없이 살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시집온 지 1주일 만에 결혼하면서 받은 패물을 팔았다. 결혼식 후 그녀는 시부모가 빚을 내서 아들의 결혼식과 잔치, 며느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빚에 대한 부담을 참을 수 없어 예물로 받은 석 돈짜리 금반지를 미련 없이 내놓고 빚을 갚게 하였다. 금값은 팔 때가 살 때보다 낮아 밀지는데, 다행히 그사이 금값이 올라 본전을 받고 팔았다. 시아버지는 시집의 사정을 알고 선뜻 패물을 팔아 빚을 갚게 도와준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리고 그녀는 금반지를 팔고 남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게 하였다. 시집와서 보니 시집은 농사철에 남의 집 도짓소를 빌리고 그만큼 그 집 일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너무 속상하였다. 소가 있으면 우리 집 농사뿐만 아니라 남의 집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좋은 소는 못 사고 제일 싼 까만 얼룩의 어린 소를 샀다. 어린 젖소를 1년 넘게 키워 제법 큰 소가 되자, 그 젖소



이윤호의 결혼식(1966년 12월 31일)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얼룩소를 팔아서 다시 산 소

를 팔고 얼룩소를 사 왔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얼룩소에게 일을 가르치니 소가 일을 곧잘 하였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소를 빌려 쓰기 위해 집으로 와 일해 주었고,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 2. 새댁의 고달픈 시집살이

남편은 2남 3녀 중 장남이나 세 명의 시누이는 모두 출가하여, 이윤호는 시부모와 막 중 학생이 된 시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집은 항상 시누이네 조카들로 북적였다. 방 하나는 시부모와 시동생이 함께 사용하였고, 다른 방 하나는 이윤호 부부가 사용하였는데, 조카들이 오면 부부는 조카들과 함께 방을 써야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다. 이것을 안 쓰럽게 여긴 시아버지와 남편은 개울에서 돌을 지게로 쳐 와 집 앞에 쌓고 거기에 흙으로 담을 쌓아 올려 부부가 지낼 방과 외양간 등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흙담



집 앞에서 시동생(중간), 시누이네 조카(우측)와 함께



집 마루에서 윗말 시누이네와 함께(1970년대 초)



10촌 형님과 함께 찍은 사진



시아버지 회갑연에서(1968년)  
뒷줄은 시동생과 남편·이윤호, 앞줄은 시부모님이다.

# SRI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방은 결국 시누이네 조카들이 차지하였고, 부부는 벼 가마를 쌓아 놓은 건넌방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시아머니는 출가 후 어렵게 사는 딸들과 그 외손주들을 각별하게 챙겼다. 그렇다 보니 시누이네 조카들은 외가에 자주 왔을뿐더러 방학 때는 한 달씩 오래 머물러 있어 이윤호를 힘들게 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농사일로 나가니 조카들을 챙기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몫이었다. 끼니마다 밥해 주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까지 해 주니 일이 많았다. 방학에 오래 있으면 쌀도 많이 들었다. 조카들은 통학을 집이 아닌 외가에서도 해 도시락까지 싸 주었다. 이렇게 조카들 때문에 힘들니 남편은 아이들을 인천 옥련동 외가로 보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외가로 가서 며칠 지내면 처가 식구들도 불편하고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못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윤호의 아이들은 외가를 모르고 자랐다.

시아버지는 동네에 일 보러 다닐 때 며느리를 종종 데리고 다닐 정도로 예뻐하였다. 결혼 다음 해 이윤호는 첫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바닷가에서 성장해 생선을 자주 먹고 좋아하던 그녀는 임신 후 생선이 먹고 싶었다. 시아버지가 그러한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 동태를 사 왔는데, 돈이 없어 두

마리도 못 사고 한 마리를 사 왔다. 그 동태 한 마리를 솥에 넣고 끓이면, 집에 온 조카들까지 온 가족이 한 점의 살도 대가리도 없이 다 먹어 버렸다. 식구는 많고 동태는 한 마리뿐이니,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겨우 국물만 먹을 수 있었다.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 조카들까지와 있으니 항상 음식이 부족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그렇게 동태 국물만 먹은 후 너무 맛있고 기운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윤호는 아이 넷을 낳는 동안 산후조리를 한 번도 못 하였다. 첫째에 이어 둘째도 딸을 낳았으니 시부모 눈치가 보여 산후조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셋째는 아들을 낳자 시부모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면서 시누이에게 산후조리를 맡겼다. 그러나 산후조리를 해 준다고 온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하던 농사일을 한다고 집 밖에만 있어, 산모인 이윤호가 시누이와 함께 온 조카들까지 밥해 먹이고 빨래까지 해 주니 산후조리는 고사하고 일만 되레 늘었다. 빨래는 집 우물에서 물을 퍼서 하는 게 힘들어 냇가에서 하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가 산후조리도 못 하고 냇가에 나와 빨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동네 창피하니 힘들어도 집 우물에서 하였다. 넷째인 막내딸 출산 후에는 병원에서 분만한 일이 미안해 산후조리를 못 하였다. 이윤호의 친정 부모는 딸이 출산하였다는 소식에 산후조리를 해 주고 싶어 왔지만, 사



이윤호의 자녀들



이윤호의 시부모

#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돈 눈치가 보여 잠시 앉아만 있다가 갔다. 딸네 집에 쉽게 오지 못하였던 친정어머니는 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나 딸네 집에서 묵고 갈 수 있었다.

### 3.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시부모

시어머니는 딸들과 외손주들에게 잘하였다. 동네에는 밥 매주고 품삯 받는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남의 밥을 매주고 품삯을 받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모아 외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었다. 시어머니의 딸과 외손주에 대한 사랑은 병환으로 몸이 불편해도 계속되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항상 깐깐하고 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넷째를 임신한 이윤호가 농사일하는 식구들의 참으로 밥을 해 머리에 이고 가다가 그만 양수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양수가 미리 터지니 며칠 집에서 진통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많지 않고 병원비 부담이 커 가정 분만이 보편

적이었고, 그녀 또한 앞서 아이 셋을 집에서 낳았다. 이렇다 산모도 아기도 잘못될 것 같으니 식구들은 산모를 수원 종로에 있던 유일산부인과로 데려갔다. 산모는 병원에서 무사히 딸을 출산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병원 분만으로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예전에는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는 일이 이따금 있었으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분만 중 사망할 것을 염려하였던 탓에 며느리와 손녀가 살아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결코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엄격할 뿐이지 모진 분은 아니었다.

시부모는 같은 해 세상을 떠나셨다. 시어머니는 병환으로 4년을 고생하다 가셨고, 그 시간은 이윤호에게 힘든 기억이었다. 시어머니가 맡아 하였던 농사일과 시어머니 간병, 집안 일 등이 모두 그녀의 몫이 되었다. 다행히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 병간호에 도움을 주었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다 이윤호가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울 때면 동서가 와 도와주었고, 간병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주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다. 시아버지는 당시 아흔셋으로 연세도 많은데,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돼 수술해도



시아버지 회갑연 잔치상과 시부모님(1968년)



시아버지 회갑연에 참석한 친지들(1968년)



이윤호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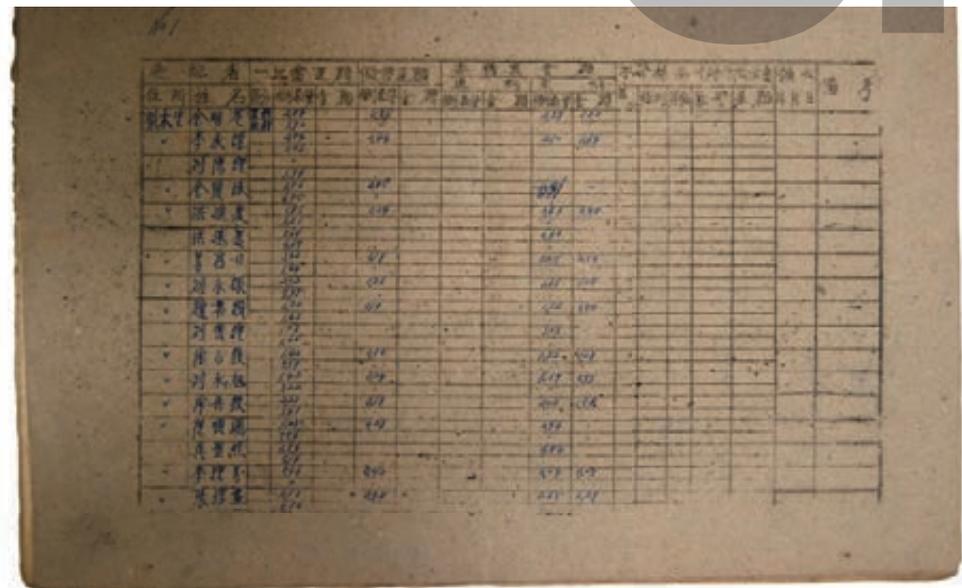
# SRI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완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를 눈치챈 시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하여 입원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었지만,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아픈 사람들이 지역 의료원에 몰리면서 수원의료원 입원은 쉽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수원의료원에 보름 정도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 의사의 예상보다 오래 사시다 그해 8월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석 달 후인 11월에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이윤호는 시집살이로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시부모를 원망하다가도, 시부모가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다.”며 오히려 눈물짓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녀에게 시부모는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엉겨 있는 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녀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기둥이기도 하였다.

#### 4. 힘겹게 일군 이목동 아랫말 터전

이윤호가 시집을 당시 시집에는 논이 열두 마지기 정도 있었는데, 논농사를 짓고 나면 시아버지는 벼를 공출 보낸다고 가지고 나갔다. 겨울에 먹을 쌀 조금만 남기고 다 들고 나가니 봄에는 쌀이 없어 조밥을 먹어야 했다.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물으니, 시아버지는 “그게 땅값 나가는 거”라고 하였다. 이야기인즉 시아버지는 농지개혁 때 농지를 분배받아, 그 농지에서 수확한 쌀인 현물로 지가를 상환하고 있었다. 상환은 1984년까지 30년 넘게 이어졌다. 어렵게 농사지어 타작까지 한 쌀을 오랜 기간 다 가져가니 고생스러웠다.

시집은 대대로 이목동에서 살아왔고, 선산도 이목동 동원고등학교 인근이며, 시아버지는 5대 독자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경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동네에 돌무더기가 쌓여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 있으면 그 돌을 싣 치워 밭을 만들었다. 그렇게 땅을 일구어 놓으면 땅 주인이 나타나 땅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이윤호가 시집오기 전에도, 시집오고 나서도 있었다. 이렇게 힘겹게 살던 시아버지는 농지 분배로 농사지를 땅을 장만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땅값을 갚아 갔다. 농사지어 수확하면 조금만 남기고 대부분을 상환으로 보내느라 고되었지만, 내 땅에서 맘 편히 농사지를 수 있었다.



분배 농지의 가격을 수확한 농작물로 상환하는 이목동 주민들(『하곡정산대장』, 1951)



1970년대 초 말기밭에서 찍은 가족사진

SRI

수원시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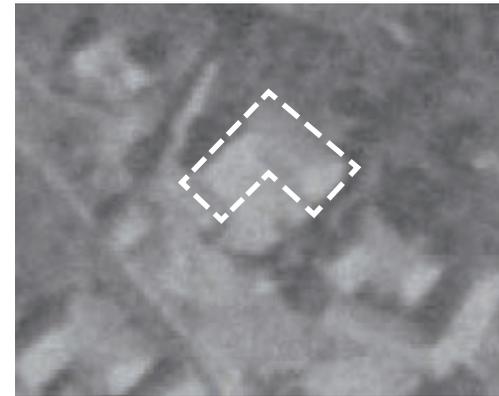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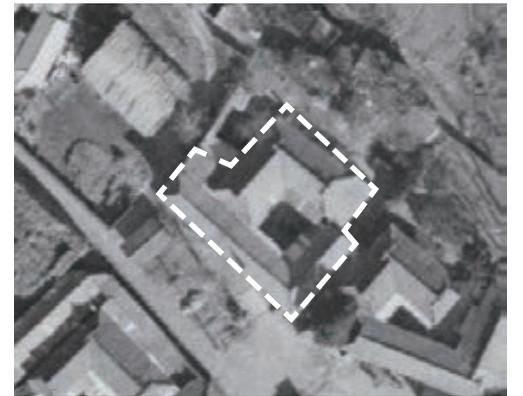
이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온 이윤호 부부는 이목동 아랫말을 떠나지 않고 현재의 집터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이윤호가 시집오기 전의 집은 동네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온 날 무너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만큼 오래되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군대 간 사이 그 집을 방 두 개와 큰 마루가 있는 초가로 새로 지었다. 시집은 후 이 초가의 방이 부족해 시아버지와 남편은 돌과 흙으로 담을 올려 방과 외양간 등을 더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흙담 방과 외양간은 얼마 못 가서 무너졌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70년대 초 이목동 청년회에서 운영하던 시멘트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사서 바깥채를 짓고, 기와지붕으로 개량한 후, 건축 인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의 노력으로 지어진 집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집 주변으로 장안로가 설치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집터가 수용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과정을 반복하는 시련에 부딪혔다. 토지 수용으로 1990년대 새로 집을 지은 후에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애국가도 부르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0년대에도 토지가 수용되어 부부에게는 토지 수용 보상비 문제, 건축비 부

## 이윤호 가옥 주변의 변화



1960년대 초가('ㄱ'자 초가집)



1970~1980년대 바깥채 증축과 기와 지붕 개조



1990년대 신축한 가옥



2016년 다시 신축한 가옥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족 문제, 도시가스·상하수도 설치 문제 등의 여러 고충이 따랐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토지 보상비에 대해 오해하는 것도 답답하였다. 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비는 예상과 달리 적었고, 보상비를 받으면 집을 헐고 신축하는 데 전부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주택 신축 공사 시에는 토지 보상비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시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의 의지와 다르게 멀쩡하게 살던 집이 헐리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지켜보던 이윤호는 속상해 울기도 하였다. 그렇게 집터는 도로에 수용되면서 300여 평의 대지는 이제 80여 평만 남았다.

2000년 이후 이목동에 대형 민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부의 농경지도 수용당해 농사지을 땅도 줄었다. 예전에는 쌀, 보리, 조, 수수, 열무, 파, 콩, 딸기 등 이것저것 다 농사지었지만, 요즘에는 농협에서 농작물을 잘 받아 주지도 않고 농지도 줄어 조, 콩, 파, 옥수수 등만



초가집 마당에서 찍은 가족사진  
좌측부터 이윤호와 작은딸,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이다.



시멘트 벽돌을 얻어다 지은 가옥 전경



도로 개설로 부지가 수용되어 신축한 주택(2004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6년 도로 부지 확장에 따라 또다시 신축한 가옥(2023년)



이목동 노인회에서 이윤호에게 수여한 표창장(1991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이윤호에게 수여한 효행상(1991년)

농사짓고 있다. 최근에 조를 심은 것은 농사꾼인 이윤호의 자녀들이 조와 수수도 구분하지 못해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이윤호는 농작물 판로가 예전 같지 않아 경작지 옆에 천막도 없이 현수막만 깔아 놓고 수확한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정성으로 재배하여서 그런 것인지, 300여 평에서 수확한 옥수수도 사나흘이면 다 팔린다. 그녀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았고 농지도 여전히 남아 있기에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나이 들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지만, 아직 아픈 데 없고 건강하다며 힘겹게 일군 이목동 아랫말의 터전에서 농사꾼으로 부지런히 살고 있다.

## 5. 이목동 아랫말에서의 삶에 녹아들다

결혼 당시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해 파는 나무꾼, 농사짓는 농사꾼, 무료로 동생과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청년회와 농촌지도소 회원, 이목동 아랫말을 담당하는 통장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남편을 보고 이윤호는 본인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싶어 부녀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목동에는 부녀회가 없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목동 부녀회 설립을 장려하자, 이○숙 등과 이목부녀회를 결성하고 총무를 맡았다. 이목동 윗말과 아랫말의 부녀

자들로 회원 수가 40명 정도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녀회 회원 집에 모여 밥을 해 먹으며 친목을 다졌고, 이틀에 한 번씩 윗말과 아랫말을 번갈아 청소하였다. 동네 청소도 해 주고 집마다 쓰레기도 치워 주면서 주민들에게 청소비를 받아 노인정에 기부도 하고, 불우이웃도 도왔다. 그녀에게 부녀회 활동은 힘든 시집살이를 벗어나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부녀회비에 대한 부담으로 회원 수도 줄고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어, 이제는 10여 명의 아랫말 부녀자들만 부녀회를 지키고 있다며 아쉬워하였다.

1980년대 중반 동원고와 동우여고가 차례로 개교하면서 타지에서 온 학생들로 이목동 아랫말에 하숙집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윤호도 생계를 위해 하숙을 쳤다. 새로 지은 집은 방이 4개였는데, 그중 2개 방에 미닫이를 설치해 4개로 만들어 하숙생을 들였다. 하숙생들의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챙기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주었다. 빨래도 해 주고, 비가 오면 우산도 가져다주었다. 남편은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EBS 교육방송을 녹음하였는데 그것을 하숙생들에게도 듣게 하였고, 하숙생이 다쳐 등하교가 어려우면 자전거에 태워 직접 등하교도 시켰다. 처음에는 하숙생이 많지 않았으나, 그녀의 하숙집은 입소문이 나서 8명까지 늘었다. 이천에서 온 남학생도 있었고, 안양에서 온 자매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녀, 시누이네 조카, 하숙생의 도시락을 한 번에 17개까지 싸기도 하였다. 하숙생들은 졸업 후 행사 등으로 다시 모교를 방문하면 그녀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다. 그녀는 먹고살기 위해 하숙을 쳤지만, 하숙생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고맷았다.

이윤호는 이제 노인이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며 지내고 있다.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목동 아랫말경로당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건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던 곳인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과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목동 아랫말에 대를 이



이목동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윤호





마을의 사랑방인 이목경로당 앞에서

어 살고 있으니 이목경로당도 대를 이어 이용하고 있다. 그녀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른 누구보다 이곳에 큰 애정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목동 아랫말에 대한 마음도 같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윤호는 이목동 아랫말이 익숙하고 편하였다. 이목동 아랫말 토박이에게 시집온 그녀에게 이 마을은 낯선 동네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자주 다녔던 외가가 수원과 가까운 안양이었고, 그녀와 남편을 중매한 큰어머니는 이목동 윗말 강릉 유씨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종사촌 또한 이목동으로 먼저 시집와 살고 있었다. 이윤호에게 이목동은 이렇게 인연이 있던 동네였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스스로없이 이목동 아랫말에서의 삶에 녹아들었고, 이목동 아랫말 사람이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목동 아랫말에서 대대로 살아온 어느 인동 장씨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 피난민이지만 어엿한 이목동 사람, 김춘자

SRI

수원시  
수원학  
SUWON RESEARCH INSTITUTE

## 1. 평양에서 개성-김포-평택을 거쳐 수원에 정착하다

김춘자는 고향이 평양으로 한국전쟁 당시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다. 1941년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와 언니,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양 조장을 운영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살기 어려워져, 식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왔다. 작은아버지가 해방 후 남쪽에서 육사를 졸업하고 한국전쟁에서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이력으로 인해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려 산속에 숨어 지내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1·4후퇴 때 김춘자의 가족과 친척 20여 명은 함께 기차길을 따라 걸어서 내려왔다. 그녀의 부모님은 피난길에 식구들이 헤어질까 염려되어 어린 자녀의 몸을 끈으로 연결하여 이동하였다. 김춘자는 당시 열 살이었으나, 여든이 넘는 지금까지 극한의 피난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폭격 소리, 철도 다리에서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 폭격 맞아 죽은 소를 끊어 먹었던 일 등 피난길은 말도 못 하게 힘들었다.

피난길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버지가 대동강을 건너다 얼어 죽을 뻔하였던 일이다. 집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동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가 끊어져 강물 속을 걸어서 건너야만 하였다. 열아홉 살, 열네 살이던 오빠와 언니는 스스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지만, 아직 어린 김춘자와 여동생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제일 먼저 김춘자를 업어 건네주고, “요 자리에 고대로 있어라.”라고 하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식구들을 기다리다가, 열여섯에서 열일곱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강을 건넌 후 사망하는 것을 보았다. 1월의 혹한에 강물에 몸을 담그고 건너다 몸이 얼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도 딸을 업어 건네주고 다시 돌아가 집 보파리를 훑기는 등 반복해서 강물에 몸을 담가 건다 보니 몸이 그 사람과 똑같이 변하였다. 놀란 식구들이 불을 피우고 아버지의 몸을 주



1963년 친구와 함께

물러 주자, 다행히도 아버지는 몸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살아났다. 어린 나이에 피난길에서 아버지의 생사를 오가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김춘자네는 개성을 지나 김포에 도착하였고, 서울로 가려고 하였으나 한강 다리가 무너져 있는 바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평택 송탄면 서정리까지 왔다. 그러다 청북면 백봉리 어느 과수원의 빈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안중 지역에서 배급을 준다는 이야기에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미군이 잘못 쏜 공포탄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백봉에서 겨울만 지내고 나왔다. 이북에서 같이 넘어온 이가 수원에서 장사 일을 한다고 하여, 아버지는 식구들을 데리고 그이를 따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왔다. 이때 김춘자의 나이가 열한 살이었다. 같이 피난 온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김춘자네 여섯 식구는 수원 북수동에 정착하였다. 불안하고 고단한 피난길을 접고 수원에 안착한 삶을 살게 되었다.

## 2. 영화국민학교 제2회 졸업생이 되다

김춘자네는 북수동 수원남중학교 옆 판잣집에 자리를 잡고 겨울을 두 번 났으나, 식구가 많다고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다. 다음에는 북수동 우시장 자리에 돼지 팔던 막을 집으로 지은 곳이 비어 있어 그곳으로 옮겨 몇 년을 살았다. 아버지는 수원에 와서 처음에 검은 엿으로 사탕을 만들어 팔았고, 나중에는 오빠와 수원장, 발안장 등 오일장을 돌며 옷을 팔았다. 옷 장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지동 제일교회 근처 땅을 조금 샀고, 김춘자네는 그 땅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지동에는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였다. 피난민들은 땅 주인한테 한 지번의 땅을 쪼개서 샀는데, 그러다 보니 토지를 측량해 보면 땅이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김춘자는 외숙모가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학교에 넣어 줘 수원종합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수원종합국민학교는 수원육군병원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였으나, 김덕○ 교장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새로 지으면서 영화국민학교가 되었다. 학교를 지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도 들으면서 공사 일을 돕기도 하였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입학하였기에 1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두 차례나 월반하며 입학 후 4년 만에 영화국민학교 2회 졸업생이 되었다. 이후 매항여중에 입학하였으나, “딸들은 공부 많이 해 봤자 쓸모없다.”라는 아버지의 반대로 2학년 때 중퇴를 한 후 열일곱 살부터 서울 을지로4가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외삼촌네서 숙식하며 일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정주영이 주도한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같은 이북 사람이라며 외삼촌이 공장을 정리하고 돈을 대면서, 김춘자는 다시 수원 지동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원호원의 구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하였다. 원호원에서는 보모를 하였는데, 창룡문 건너편 과부촌의 엄마들이 원호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직업 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챙기는 일이었다. 그 일을 스물한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하다가, 기아산업에 있던 친구 오빠가 남편을 소개해 주면서 스물다섯에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충남 아산 영인면 사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이던



1964년 스물네 살 때의 김춘자

형의 소개로 기아산업에 다니고 있었다. 기아산업은 자전거를 만들어 팔다 1960년대부터 삼륜 트럭을 만들었고, 남편은 기아산업 공장 내 예비 검사장에서 생산된 트럭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남편의 직장인 기아산업 공장이 서울 영등포에 있어 신혼살림은 신길동에서 시작하였다.

### 3. 선경합섬 취업으로 이목동에 와 살다 집도 장만하였지만 ……

김춘자는 결혼 후 서울 신길동에서 둘째 시누이를 모시고 살았다. 둘째 시누이는 이혼 후 서울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손이 없어 막내 남동생인 남편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결혼할 때 올케인 김춘자에게 패물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시누이와의 한집살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김춘자는 시누이의 지인이 용산에 아파트 지을 때 쓸 일본 수입재 산다고 해서 시누이에게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로 정부가 당시 진행 중이던 건설 현장을 엄격하게 감리하기 시작하자, 지하에서 2층까지 올라갔던 용산 아파트 공사는 ‘재건축 명령’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다니던 기아산업에 사표를 내고 나왔고, 첫 아이였던 아들이 네 살에 죽고 둘째인 딸을 낳았을 때였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용산 아파트 공사 중단 문제로 형편이 어려워진 시누이는 서울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정리하고 파주 용미리 부대 근처에 다시 다방을 차렸다. 김춘자 부부는 시누이를 따라 파주로 갔다. 그러나 시누이가 새로 차린 다방은 사단이 아닌 연대 근처라 장사가 안되었다. 먹고살기 어려워니, 김춘자는 동네에서 생선을 대야에 이고 다니며 파는 이를 따라 생선을 팔기 시작하였다. 장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이 알고 찾아와 그녀가 팔던 생선이 담긴 고무대야를 내던지고 사라졌다. 이 일로 속상한 나머지 그녀는 세 살 된 딸을 데리고 수원 지동 친정집으로 왔다. 그렇게 친정에 와 지내다 버스에서 우연히 어릴 때 한 동네 살던 동생 태○을 만났고, 선경합섬에서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던 태○은 김춘자의 사정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선경합섬에 취업하게끔 도와주었다.

남편이 선경합섬에 취업하자, 김춘자네는 1971년 7월 파장동으로 와 살다가 그해 12월 이목동으로 왔다. 부부는 처음 이목동에 들어와서 차씨네 조그만 사랑방에 세 들어 살았고, 김춘자도 선경합섬 구내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지동 친정집에 딸을 맡겼다. 그러다 남편은 한일합섬 공장이 조원동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경에서 7명의 공구리 패를 꾸리고 나와 한일합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한일합섬 공사 이후 동네 김종

○의 소개로 파장동 삼익아파트, 서울 을지로 지하도 등의 공사도 맡았다. 김춘자는 임신하여 배가 불리으면서 선경합섬 식당 일을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녀는 이목동에 와서 딸 한 명을 낳은 후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친정에 있던 큰딸도 데려와 딸 넷을 돌보며 지냈다. 차씨네 사랑방에 월세로 7년을 살다가 한 동네 흥씨네 전세로 이사도 갔다.

남편의 공사 일로 돈을 모아 좀 여유가 생기자, 이전 집주인 차씨가 냇가 저쪽으로 땅이 좀 있으니 사라고 해 그 땅을 평당 10만 원에 구매하였다. 거기에 집을 짓고 1980년부터 살았다. 이목동에 들어온 지 9년 만에 내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다. 남편은 공사 일을 계속하였고, 다음 해에는 부산에서 공사를 한다고 20여 명의 인력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러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남편은 공사를 못 하고 데리고 간 사람들 먹여 살리기만 하다 보니 돈만 까먹고 올라왔다. 남편이 까먹은 돈은 김춘자네 것도 있었고, 남편이 중간중간에 돈을 부쳐달라고 해 남에게 빌린 것도 있었다. 1982년 남편은 부산에 내려간 지 1년 만에 쫓딱 망해 집에 돌아왔고, 김춘자는 아들을 출산하였다. 아들을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빚 때문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아이 다섯을 돌보며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그래서





둘째 딸(오른쪽에서 두 번째) 초등학교 졸업식



둘째 딸 중학교 졸업식(왼쪽부터 김춘자, 둘째 딸, 첫째 딸, 조카)

# 수원시정연구원

##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

김춘자는 집을 판 돈으로 빚부터 갚았으나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집은 팔렸으니 비워줘야 했다. 돈을 빌려줬다 받은 사람들이 김춘자가 남편도 없이 아이 다섯을 데리고 그러고 있으니 “판 사람 같으면 도망갔다.”라며 사글셋방을 얻으라고 돈 50만 원을 갖다주었다. 그 돈으로 아이 다섯을 데리고 셋방을 얻을 수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동네 하천 부지의 사유지에 판잣집을 짓고 살라고 해, 그 돈 50만 원으로 사유지에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집을 짓고 1983년부터 살았다. 집 짓고 사는 곳이 사유지였으므로 수원시가 조사해 사용료를 받았는데, 김춘자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사유지에 살며 수원에 사용료를 내었다. 그곳이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 집을 팔고, 그 옆 사유지에 집을 짓고, 사용료를 내며 살아온 것이다.

### 4. “일흔한 살까지 내가 식당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아이 다섯에 막내아들은 돌도 안 되었을 때이니 먹고살 길이 막막하였다. 그래서 영복여

중 2학년이던 큰딸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기로 하고 휴학계를 제출하게 하였다. 큰 딸이 휴학계를 내고 오는 날 김춘자는 자식 공부 하나 못 가르치는 자신의 상황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식당 일하던 옆집 아주머니와 식당 일을 구하러 북문에 나갔다 개업한 지 3개월 된 풍년집이라는 밤 장사하는 식당의 구인을 운 좋게 보고 야간에 일하기로 하였고, 큰딸은 밤에만 동생들을 돌보니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12만 원을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6만 원으로 올랐다. 일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을 때 지동에서 업어 키우던 동네 동생 국○이가 직원들과 풍년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술집 골든타워의 총지배인이던 국○이가 직원들이며 가수들을 풍년집에서 밥을 먹게 해 매상을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북 사람이던 중앙약국 사장 김인영이 풍년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다. 김인영은 김춘자가 초대 청년회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다시 만났을 때는 민정당 경기도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번에는 김인영이 도당 사람들을 불러와 매상을 올려주었다. 그러자 김춘자의 월급은 풍년집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60만 원이 되었다. 김춘자는 월급 60만 원 중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썼고, 채권자들에게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주면서 빚을 다 갚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집에 돌아와 있었다. 돌도 안 되었던 아이들이 6살이 되었을 때였다. 남편은 그동안 손해 본 걸 만회하기 일해 일을 잡으러 다녔다



영화동 풍년집



1997년 여행에서 남편과 함께

수원시정신건강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며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구 사는 셋째 누나네 가 있으니, 일이 조금씩 들어온다고 다시 일한다고 나갔고, 집으로 생활비를 보내 왔다. 그러다 아이들이 8살이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동네 주민의 소개로 평택 미군 부대에서 4~5년 정도 일하였다.

김춘자는 풍년집 사장이 안양시청 후문에 2호점을 내면서 거기 주방장으로 갔으나, 계산대에 있던 사장의 처제가 주방장인 김춘자의 월급이 자기보다 많다고 시기해 2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 후 경찰서 앞 북일식당에서 일하다 1994년 이목동에 이목식당을 차려 내장사를 시작하였다. 학교 선생님들도 오고, 정연진열 직원들도 와 장사가 잘되었으나, 정연진열이 망하면서 점점 장사가 안 돼 5년 만에 식당을 정리하고 인계동에 있는 남의 식당에서 일하였다.

그러다 인계동에서 삼겹살집 하는 김춘자의 셋째 딸이 “남의 식당에 다니지 말고, 엄마가 와서 점심 장사를 해라. 대신에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저녁 장사하는 거를 도와줘라”라고 해서, 딸네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하고, 딸네 저녁 장사 때는 주방 일을 맡았다. 아줌마를 한 명 두고 딸네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열여섯 명이 왔다. 그



둘째 딸 졸업식



막내아들 졸업식

러더니 근처 국세청, 은행, 삼성증권 등의 직원들이 많이 와서 시간제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30분씩 끊어 40명씩 손님을 받아 120명까지 받았다. 점심만 팔아도 장사가 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4년 7개월 정도 딸네 식당에서 일하였는데, 딸이 식당을 못 하게 돼 그만두는 바람에 또 내 장사를 접었다. 그 후 파장동 시장 아주머니가 영통에 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와서 좀 일해 달라고 해 거기에서 또 남의 식당 일을 5년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김춘자의 나이는 어느새 일흔이 되었다. 김춘자는 나이가 드니 몸도 힘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다 끝났고 하여 일흔한 살에 식당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아이 다섯을 데리고 빚까지 갚으며 살아야 했기에 시작한 식당 일을 30년 가까이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는 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일흔한 살까지 내가 식당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 5. 지역의 일꾼으로 살다

김춘자는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 식당 일을 오래 하였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다섯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부족하였어도 잘 자라주어 그중 넷이 대학을 마쳤다. 특히 막내아들은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돌도 안 되었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데 급급해 챙겨 주지 못하였지만, 너무나 잘 자라 주었고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군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김춘자는 아이들 다 키우고 식당 일도 정리하였으니, 이제 이목동 아랫말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실은 그것이 아니라, 1971년 이목동으로 이주한 후부터였다. 그녀는 이목동으로 들어온 후 줄곧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어울려 살아왔다. 여든이 넘은 그녀는 지금도 이목동 아랫말과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현재는 아랫말경로당의 회장을 맡아 하고 있고, 이전에는 경로당 부회장을 맡았으며, 그 이전에는 10년간 아랫말에서 반장 일도 보았다. 그리고 이목동 부녀회장, 청년 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일도 맡아 한 지역의 일꾼이다. 그녀가 활달하고 발이 넓은 탓도 있겠지만, 그녀가 어려울 때 이웃에게 받았던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것이다.

김춘자는 지동에 살던 열일곱 살 때 이목동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하느라 이목동을 처음 와 보았다. 그때는 이 동네 집이 열 채도 안 되었는데, 1971년에 이주해 오니 집이 많아져 있었다. 공장이 생기면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일하러 온 타지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었고, 무허가 집들도 많이 지어졌다. 남자들은 주로 공장에서



지역 행사와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왔던 이목동 여자친목회



이목동 여자친목회 친목 여행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이목동 남자친목회 '우정회' 가족 여행





일하였는데, 특히 해태, 선경에 많이 다녔다. 이목동은 1960년 이전만 해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으나, 그 후 공장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사람들도 그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오기 시작해 인구가 늘어난 동네이다. 김춘자네도 그러한 이유로 처음 이목동으로 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김춘자는 이목동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수원이 고향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내려와 김포-평택을 거쳐 정착한 곳이 수원 북수동-지동이고, 결혼 후 서울-파주를 거쳐 다시 정착한 곳이 수원 이목동이다. 중간에 일과 결혼으로 잠깐 타지에서 살았지만, 열한 살에 수원으로 왔으니 수원에 살기 시작한 지 70년이 넘었고, 서른 살에 이목동으로 들어왔으니 이목동에 살기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다.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원에서, 이목동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김춘자는 어엿한 수원 사람이며, 이목동 사람이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